

표류하던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새국면

민주당 TF 구성... 범정부협의체 내달 재가동 전망
姜시장 "연말 데드라인 철회... 여론조사 등도 중단"
전남도 환영 입장문 "중요한 건 무안군민 수용성"

무안군의 반대와 광주·전남도 사이의 갈등으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던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상생발전 TF'를 구성해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논의할 데다,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도 12월 중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재가동에 나서기 때문이다. 광주·전남·무안군 등 3개 지자체에 국한됐던 공항 문제가 민주당과 정부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광주·전남·무안군·전남도·국방부·행안부·국토교통부·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기점으로 범정부협의체가 본격 재가동할 경우 정부 주도의 광주·민간·군공항 이전 문제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 TF 구성... 범정부협의체 내달 재가동 전망
姜시장 "연말 데드라인 철회... 여론조사 등도 중단"
전남도 환영 입장문 "중요한 건 무안군민 수용성"



무안군의 반대와 광주·전남도 사이의 갈등으로 담보상태의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은 광주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광주매일신문 DB>

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약간의 기초단체장 등을 포함하고 중앙당에서 지원하며 정책 연구 인력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발전 TF에서 공항 이전 문제와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 등 에너지 문제, 행정·산업 통합 문제 등 광주·전남 주요 현안을 다룰 것이라는 게 김 수석최고위원의 설명이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세종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아가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를 건의했다"며 "이에 국무조정실이 12월 중 국무차장 주재로 광주·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교통부·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 개최로 화답해 줬다"고 밝혔다. 12월 실무회의를 기점으로 범정부협의체가 본격 재가동할 경우 정부 주도의 광주·민간·군공항 이전 문제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인다. 강시장은 또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당사자의 범위를 중앙정부와 정치권까지 넓혔고, 지역의 현안으로 바라보던 문제를 전국의 현안으로 바꿨으며 행정이 제시한 방향에 정치가 힘을 싣도록 했다"고 자랑했다. 특히 강시장은 그동안 고수해온 군공항 이전 논의의 연말 데드라인 입장을 철저히 한 편, 무안 열린대화방 운영·무안 미래 비전 레비전 토론회·여론조사도 모두 중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강시장은 "민주당 TF 및 국무조정실 범정부협의체와 함께 (광주·민간·군공항 통합이전)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혀 전남도와의 공항 관련 별도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이날 윤재광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의 범정부협의체와 민주당의 광주·전남 상생발전 TF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는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안군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광주·전남이 무안군민을 설득할 종합적 대안과 무안군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진정성있게 접근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수희 기자>



장타율+득점+MVP 26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에서 정규시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KIA 김도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영, 압도적 득표율 MVP 등극

101표 중 95표 얻어 생애 첫 MVP 영예
21세 1개월 24일...역대 야수 최연소 기록

"이제는 김도영의 시대"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KBO 시상식에서도 주인공이 됐다. 김도영은 26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에서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16면>
프로야구 취재기자단 투표 결과, 김도영은 유효표 101표 중 95표(득표율 94.06%)를 얻어 롯데 자이언츠 빅터 레이에스(8표)를 여유있게 제치고 생애 처음으로 MVP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김도영은 시상식이 열린 이날 기준 만 21세 1개월 24일의 나이로 역대 야수 최연소 MVP에 등극했다. 타이거즈 구단 역사로는 지난 2017년 양현종에 이은 통산 10번째 MVP 수상이며, 동시에 삼성 라이온즈(9회)를 넘어선 KBO 최다 MVP 배출 기록이다. 김도영은 정규시즌 MVP 부상으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이룬 김도영의 무대로 바뀌었다. MVP 트로피를 손에 쥔 김도영은 "많은 함성으로 응원해주고, 믿음으로 응원해 준 기아 팬들께 감사하고 싶다. 저는 올해 팬들 땀이 흘렀다"며 "앞으로 나이가 들더라도 한국 야구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선수가 되고 싶다. 항상 겸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제 김도영은 한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황금세대' 주역으로 떠올랐다. 이번 시즌 그의 놀라운 활약은 한국 야구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왔고, 팬들에게는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KIA의 마무리 투수 정해영은 세이브상을 수상했고, 외국인 투수 네일은 평균자책점상, 박찬호는 유격수 부문 수비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주홍철 기자>

엄청난 인기몰이를 이룬 김도영의 무대로 바뀌었다. MVP 트로피를 손에 쥔 김도영은 "많은 함성으로 응원해주고, 믿음으로 응원해 준 기아 팬들께 감사하고 싶다. 저는 올해 팬들 땀이 흘렀다"며 "앞으로 나이가 들더라도 한국 야구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선수가 되고 싶다. 항상 겸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제 김도영은 한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황금세대' 주역으로 떠올랐다. 이번 시즌 그의 놀라운 활약은 한국 야구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왔고, 팬들에게는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KIA의 마무리 투수 정해영은 세이브상을 수상했고, 외국인 투수 네일은 평균자책점상, 박찬호는 유격수 부문 수비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주홍철 기자>

Today
한빛원전 사용후 핵연료 어떻게... 5면
예비간호사들 '기억 없는 대기' 6면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 인터뷰 16면

오늘 '첫눈'...강풍에 체감온도 '뚝'

해상 풍랑특보 항해·조업 주의

27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올 겨울 들어 첫 눈이 내릴 전망이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7-28일 광주·전남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 동부 내륙 1-5cm다. 강수량은 광주·전남 5-20mm로 예보됐다. 이 기간 전남 해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눈과 비가 번갈아 가며 내릴 것으로 보인다.

27-28일 최저·최고기온은 각각 1-6도, 6-10도로 예보됐다. 26일 광주·전남 전역에 발효된 강풍특보가 당분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는 훨씬 낮겠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흑산도와 흥도에는 강풍 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전해상에는 풍랑 주의보가 내려졌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27-28일 강수는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형태가 달라지겠다"며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는 12월 1일까지 풍랑특보가 이어지겠다"며 "28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재영 기자>

**보행자 중심의 길,
함께 걷고 싶은 길,
대·자·보 도시 광주입니다**

중교통 전거 행

내·외·일·빛나는 기획도시 광주